

# 농촌의 문화여가자원 평가를 위한 척도 개발 연구\*

황정임\*\* · 최윤지 · 윤민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 A Study on Evaluation of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of Rural Areas

Jeong-lm Hwang · Yoon-Ji Choi · Min-Hye You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scale and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cale. The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scale was developed and identified its validity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scale consisted of four factors, which were 'personal resources', 'support staff resources', 'facility resources', and 'program resources'. Those four factors indicated the reasonable fit indices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addition, this scale showed convergent validity with the satisfaction of cultural and leisure environment and the satisfaction of one's cultural and leisure life. The result of scale score compariso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showed that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in rural areas were less abundant than those in urban areas. Furthermore, while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the satisfaction of urban residents' were mainly 'personal resources', the variables in case of rural residents' were mainly 'program resources' and 'facility Resources'. The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scale can be used for policymakers practicably to evaluate regional level of culture and leisure resources, to compare between regions and to find policy priorit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eisure, especially for disadvantaged areas with less resources.

**Key words:** culture and leisure resource, rural, evaluation scale

## 1. 서 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가가 단순히 일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다(Driver, Brown, & Peterson, 1991).

그러나 여가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원이 여가의 질과 양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짐을 고려할 때, 한 사회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여가 활동 조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미(1997)는 여가생활수준을 상이하게 하는 제약 요인이 바로 '자원 수준'인데, 농촌과 도시 간 그 차이가 극명하며, 농촌에 비해 도시에서 우세하게 나타남을 역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가 공간 및 프로그램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뒤쳐져 있음을 최창욱 & 이채식(2004), 홍성희, 류진아, & 임승희(2011) 등이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서도 '문화·여가' 부문을 7대 삶의 질 부문 중 하나로 포함하여, 농촌의 문화여가 여건 개선을

주요어: 문화여가자원, 농촌, 평가척도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998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황정임) 전화: 063-238-2647 e-mail: jihwang@korea.kr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주민이 전반적 문화여가 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7.9%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도시 주민의 ‘만족’ 비율 20.8%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황정임 & 최윤지, 2014). 조영숙, 이문주, & 황대용(2009)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촌 주민들이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도시의 화려한 문화여가 여건과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열악한 여건 간의 간극이 이러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야기하는 데에 기여했으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으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시간적 제약’을 선택한 비중은 도시가 농촌에 비해 높았으나, ‘비용의 제약’, ‘교통 불편’,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응답 비중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문화여가 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개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의 지역 자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된 문화여가 관련 척도는 여가 만족, 여가 경험, 여가 몰입 등 주로 개인의 여가생활에 초점을 맞춘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문화여가 관련 지표 개발 연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일부 만족도 및 인식 지표를 포함, 절대적 다수의 정량적 지표, 즉, 문화복지 시설의 수, 여가 관련 예산액, 여가산업 규모/매출액/종사자 수 등을 위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양혜원, 2013; 윤소영, 2013; 이강욱, 2007). 이러한 정량적 지표들은 특정 지역 단위의 문화여가자원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지표들이나, 이와 더불어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척도가 보완된다면 정책 수요, 혹은 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및 개인의 문화여가자원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의 개발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문화여가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될 수 있는 문화여가자원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문화여가자원은 지역의 관점에서 볼 때 농촌과 도시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 간 비교를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여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여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척도 개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척도는 여가만족척도(LSS, Leisure Satisfaction Scale)로서, 1980년 Beard와 Regheby이 최초 발표한 이래, 국내에서도 한국형 여가만족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김영재, 2004; 김미량, 이연주, & 황선환, 2010). 여가만족척도 연구에서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긴장이완, 신체적, 심미적 요인 등이 여가만족을 구성하는 주된 하위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여가행동에 대한 심층

〈표 1〉 문화여가자원 구성 요소 관련 선행연구

구분	내용	출처
	여가시설의 접근성	Crawford & Godbey (1987), 이강욱(2007), 이승미(1997)
	여가시설의 외양 및 청결성	이강욱(2007)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 비용	Crawford & Godbey (1987), 이강욱(2007)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여가시설의 이용 편의성(이용 시간, 적절성, 혼잡성 등)	Crawford & Godbey (1987), 지현진 & 이철원(2003), 오정학, 김철원, & 김종갑(2011), 이강욱(2007)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안전성	Crawford & Godbey (1987), 지현진 & 이철원(2003)
	여가 관련 정보(정보의 제공, 정보 획득, 정보의 접근성 등)	Crawford & Godbey (1987), 오정학, 김철원, & 김종갑(2011), 이승미(1997), 지현진 & 이철원(2003)
여가 지원 체계 및 인력	지역의 여가 지원 예산	윤소영(2013), 이강욱(2007)
	지원 인력의 지식 및 도움 정도	이강욱(2007)
	지원 인력의 수	윤소영(2013), 이강욱(2007)
	금전자원(수입, 생활비, 용돈, 경제적 여유 등)	Crawford & Godbey (1987), 박애숙(2001), 오정학, 김철원, & 김종갑(2011), 이미연(2004), 이승미(1997), 지현진 & 이철원(2003)
개인 여가 자원	시간(시간적 여유, 여가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등)	Crawford & Godbey (1987), 이승미(1997), 지현진 & 이철원(2003)
	대인관계(여가를 함께할 만한 친구, 동료, 가족 등 여가 동반자)	Crawford & Godbey (1987), 박애숙(2001), 오정학, 김철원, & 김종갑(2011), 이미연(2004), 이승미(1997)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상태, 신체적 능력, 장애 등)	Crawford & Godbey (1987), 박애숙(2001), 이미연(2004), 지현진 & 이철원(2003)
	기술, 지적 능력	Crawford & Godbey (1987), 지현진 & 이철원(2003)

적인 이해를 위한 여가경험척도(고동우, 문상정, 오송대, & 김용희, 2009; 박수정, 2004), 여가몰입척도(김미량, 김재운, & 황선환, 2010; 김영재, 2010), 여가열의척도(김영재, 2012), 여가강박척도(윤지연, 최승희, & 허태균, 2013), 여가제약협상척도(오정학, 김철원, & 김종갑, 2011; 지현진 & 이철원, 2003; Hubbard & Mannell, 2001; White, 2008) 등도 여가와 관련하여 개발된 주요 척도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여가를 조명하고 있어, 개인의 여가생활을 사적·공적 제반 여건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여가생활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여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자원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화여가’의 용어는 최근의 정책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양혜원(2013)은 여가를 ‘자유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않은 활동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의 범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국민 일반의 문화여가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문화여가정책으로 지칭하고 있다.

<표 1>은 문헌을 통해 문화여가자원의 구성 요인을 추출한 것이다. 문헌연구 결과, 문화여가자원은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여가지원체계 및 인력, 개인여가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위 요인으로서 여가시설의 접근성, 시설의 외양 및 청결성, 이용 비용,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가 관련 정보, 지역의 지원 예산·인력 관련 하위 요인은 ‘여가 지원 체계 및 인력’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금전 자원, 시간, 대인관계, 건강상태, 기술 및 지적 능력을 ‘개인여가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척도 구성(안)을 일련의 척도 개발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최종 척도로 확정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 대상

앞서 제시한 문헌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화여가자원 초기 척도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한 문항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는 농촌(군) 주민 200명, 도시(대도시, 중소도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부

수는 척도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수를 보통 문항 수의 5~10배 이상으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다(엄명용 & 조성우, 2005).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 지자체의 문화여가 여건을 등급 순으로 정렬한 목록에서 체계적으로 추출하였다(코뮤니타스, 2014). 그 결과, 농촌 6지점, 도시 7지점 등 총 13개 지점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각 지역의 전화번호부에서 일정한 표집 간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활용,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 3.2. 분석 절차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기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여가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6명, 교수 2명)에게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수정·보완한 척도안에 대해 다시 전문가 3명의 검토를 받았다. 그 결과, 시설, 프로그램, 지원체계 및 인력, 개인 자원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된 23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척도의 구성개념을 결정하기 위한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요인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적용했다. 이상의 척도 개발 절차는 엄명용 & 조성우(2005)의 저서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척도 개발 연구가 따르는 절차를 준용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SPSS 21.0과 AMOS 9.0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 4. 연구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확보한 23개의 척도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농촌, 도시 모두에서 여성,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높았으며, 농촌에서 생산/서비스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에서 주부, 무직/기타 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농촌 (n=200, %)	도시 (n=200, %)	구분		농촌 (n=200, %)	도시 (n=200, %)
성별	남성	44,5	30,5	학력	중졸 이하	62,7	45,2
	여성	55,5	69,5		고졸	24,9	28,6
연령	50대 이하	30,5	38,0		대학 이상	12,2	26,2
	60대 이상	69,5	62,0	직업	관리/전문/사무직	5,1	11,5
연간 소득	1,000만원 미만	39,1	16,2		생산/서비스직	49,7	16,5
	1,000~2,000만원 미만	22,9	27,2		자영업	8,1	11,5
	2,000~3,000만원 미만	11,5	13,6		주부	14,7	25,5
	3,000~4,000만원 미만	15,6	14,7		학생	2,0	3,5
	4,000만원 이상	10,9	28,3		무직/기타	20,3	31,5
계	100,0	100,0	계		100,0	100,0	

## 4.2. 문항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 4.2.2. 요인분석 모형 선정 및 기초구조 분석

#### 4.2.1. 측정변수 검토 및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신뢰도 분석을 먼저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신뢰도 계수값(Cronbach- $\alpha$ )이 0.92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문항을 제거해도 신뢰도 값에 큰 차이가 없어 전체 문항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0에 가까운 경우)는 없었는데, 이는 해당 문항이 다른 문항과 다른 영통한 요인을 측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1번(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 시설이 우리 읍/면/동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과 2번(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시설이 우리 시/군/구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7번(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우리 읍/면/동에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과 8번(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우리 시/군/구에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 13번(우리 지역 문화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강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과 14번(우리 지역 문화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강사는 친절하다), 그리고 20번(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생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과 21번(나는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거나 하는 의향/의욕이 있다) 문항에서 문항 간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0.8 이상)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이 가운데 1번과 2번, 7번과 8번의 경우에 대하여 더 포괄적인 문항인 2번과 8번만을 남기고, 1번과 7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척도의 요인을 유목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구조 도출을 위해 공통요인 모형 방법 중 주축요인추출법을 선택하였는데, 주축요인추출법은 최대우도법에서 요구되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이 불필요하며, 척도 개발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엄명용 & 조성우, 2005).

문항 제거 후, 남은 문항들을 바탕으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지 확인한 결과,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값이 0.908로 나타나 기준치인 0.60 이상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역시 유의한 수준( $\chi^2=4978.641, p<0.001$ )으로 나타났다. 즉,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이 넘는 요인이 4개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누적분산비율과 스크리 검사 결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때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4요인 구조를 상정하여 직각회전 중 베리맥스(Verimax) 기법으로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사회현상에서 요인이 엄격히 서로 상관이 없다는, 즉 직교성을 갖는 경우는 드물지만 요인분산의 극대화를 통해 요인구조 해석의 용이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였다(윤지연, 최승혁, & 허태균, 2013).

그러나 분석 결과, 17번(나는 문화여가활동을 향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문항의 경우, 특정 요인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요인과의 관계가 분명한 다른 문항의 경우에도 내용 면에서 해석이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어 17번 문항을 제

<표 3> 문화여가자원 척도 최종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설명	측정변수	Factor				Cronbach - $\alpha$
		1	2	3	4	
개인자원 요인	(20)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생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	.868	.045	.086	-.119	0.889
	(21) 나는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의향/의욕이 있다	.833	.076	.103	-.063	
	(19)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821	.098	.159	.101	
	(18)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764	-.018	.037	.145	
	(22) 나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해 가족들이 지지하고 격려해준다	.656	.196	.157	.130	
	(23) 나는 문화여가활동을 함께할 만한 사람(친구, 가족, 동료 등)이 있다	.577	.148	.225	.202	
	(16) 나는 문화여가활동을 향유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다	.488	.115	.094	.244	
지원인력 자원 요인	(14) 우리 지역 문화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강사(또는 직원)는 친절하다	.183	.836	.282	.110	0.905
	(13) 우리 지역 문화여가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강사(또는 직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145	.824	.302	.204	
	(12) 우리 지역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의 강사(또는 직원)의 수는 충분하다	.103	.687	.230	.332	
	(15) 우리 지역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 공무원, 민간지원인력, 전문가 등의 도움이 크다	.055	.668	.262	.243	
시설자원 요인	(06)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시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110	.319	.757	.105	0.840
	(04)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시설은 원하는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101	.210	.722	.104	
	(05)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시설의 이용비용은 적정하다	.139	.215	.661	.226	
	(03)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시설까지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217	.101	.621	.127	
	(02)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시설이 우리 지역(시/군/구)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130	.276	.524	.213	
프로그램 자원 요인	(10) 나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단계별 문화·여가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127	.350	.337	.606	0.836
	(11) 우리 지역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184	.406	.165	.537	
	(08)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시/군/구)에 충분히 개선되어 있다	.082	.430	.354	.531	
	(09)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여가프로그램의 이용비용은 적정하다	.176	.334	.430	.504	
	고유값	3,967	3,250	3,064	1,716	
	요인 분산	19.8%	16.2%	15.3%	8.6%	
	누적 분산	19.8%	36.0%	51.3%	59.9%	

외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가 <표 3>과 같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각 요인별로 비교적 뚜렷한 문항 분류가 이루어져, 각각 개인자원, 지원인력자원, 시설자원, 프로그램자원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20문항으로 이루어진 4요인 모형이 도출되었다. 문화여가자원 척도의 4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9.9%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자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0.916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값도 모두 0.8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 4.3. 확인적 요인분석

척도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경쟁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모형이란, 연구자가 본래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과 그보다는 이론적 지지가 약한 다른 모형에 대하여 모두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는

(표 4) 경쟁모형 적합도

경쟁모형	$\chi^2(p)$	자유도	NFI	CFI	RMSEA
3요인 모형 (프로그램 및 인력자원, 개인자원, 시설자원)	840,918 (0,000)	164	0,834	0,862	0,101
4요인 모형 (개인자원, 지원인력자원, 시설자원, 프로그램자원)	632,195 (0,000)	164	0,875	0,904	0,085
※판정 기준	-	-	0.9 이상	0.9 이상	0.05 이하
요인 간 상관 (*** : p<0,01)			개인자원과 지원인력자원 : 0,267*** 지원인력자원과 시설자원 : 0,653*** 프로그램자원과 시설자원 : 0,731*** 프로그램자원과 지원인력자원 : 0,773*** 프로그램자원과 개인자원 : 0,290*** 개인자원과 시설자원 : 0,326***		

방법으로 최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엄명용 & 조성우, 2005).

이와 같은 근거로 3요인 모형과 4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이다.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표준적합도(NFI), CFI(비교적합도), 개략화 오차평균(RMSEA) 등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3요인 모형에 비해 4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더욱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여가자원은 개인자원, 지원인력자원, 시설자원, 프로그램자원 등 4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은 모두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프로그램과 지원인력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자원과 지원인력자원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4. 수렴 타당도 검증

추가적으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척도 총점과 관련 질문들과의 상관을 구하여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문화여가자원 척도 점수와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609로 나타났으며,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의 상관계수는 0.490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관련 문항과의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 본 척도가 구성 타당도를 갖춘 것을 확인하였다.

(표 5) 수렴 타당도 검증

문항	상관계수	R <sup>2</sup>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도	0,609	0,371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0,490	0,240

#### 4.5. 도농 간 문화여가자원 비교 및 회귀분석

한편, 개발된 척도를 바탕으로 도농 간 문화여가자원의 비교를 위해 문화여가자원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와 농촌의 문화여가자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요인별로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농촌이 도시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자원과 지원인력자원, 프로그램자원에서 도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농촌-도시 간 척도 점수 비교

구분	농촌 평균 (표준편차)	도시 평균 (표준편차)	t(p)
개인자원	3,379 (0,819)	3,523 (0,731)	1,860 (0,064)*
지원인력 자원	3,267 (0,868)	3,403 (0,673)	1,763 (0,079)*
시설자원	3,490 (0,859)	3,602 (0,675)	1,447 (0,149)
프로그램 자원	3,204 (0,857)	3,441 (0,698)	3,039 (0,003)***

\* p<0,1, \*\* p<0,05, \*\*\* p<0,01

마지막으로 문화여가자원에 대한 요인별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농촌, 도시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7>. 분석 결과, 농촌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에는 프로그램 자원, 시설자원, 개인자원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반면, 도시의 경우에는 개인자원, 시설자원, 지원인력자원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여가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이 비교적 풍부한 도

〈표 7〉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value	모형 적합도
	B	표준오차	$\beta$			
농촌	상수	3,505	.059		59,045	.000
	개인자원	.242	.060	.258	4,017	.000
	지원인력자원	.111	.060	.121	1,861	.064
	시설자원	.274	.060	.293	4,549	.000
	프로그램자원	.309	.067	.295	4,619	.000
Adj. R <sup>2</sup> = 0,287 F=18,787 (df=177, p=0,000)						
도시	상수	3,550	.055		64,021	.000
	개인자원	.313	.059	.346	5,277	.000
	지원인력자원	.134	.066	.134	2,038	.043
	시설자원	.214	.069	.206	3,093	.002
	프로그램자원	.105	.073	.096	1,438	.152
Adj. R <sup>2</sup> = 0,174 F=11,198 (df=193, p=0,000)						

시에서는 개인자원 수준이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시설자원 및 프로그램자원 수준이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에 주된 영향력을 가짐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 5. 결론

본 연구는 지역의 문화여가자원을 지역 주민들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화여가자원 척도의 개발을 통해,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척도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안면타당도를 확보한 후, 농촌 및 도시 지역 주민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 구조 도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4요인 모형을 선정하였다. 이어, 도출된 모형의 검증에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자원, 지원인력자원, 시설자원, 프로그램자원의 4개 요인과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모두 타당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사 개념을 측정된 문항들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정된 척도를 이용하여, 농촌 및 도시 간 요인별 척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개인자원과 지원인력자원, 프로그램자원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자원 평가 척도의 요인별 점수와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를 농촌과 도시 각각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촌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에는 프로그램 자원, 시설자원, 개인자원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도시의 경우에는 개인자원, 시설자원, 지원인력자원의 순으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여가를 ‘문화여가 자원’의 관점에서 조명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문화여가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과 도시 간 문화여가자원의 격차는 관련 연구들에서도 흔히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본 척도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여가자원 실태를 확인 및 비교하고, 우선 정책 영역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각 지역의 문화여가자원은 각종 정량적 지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나, 이처럼 주민들의 주관적 평가 인식을 함께 활용한다면, 더욱 현실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여가자원 평가 척도 개발 시 개인자원과 시설/프로그램/지원인력자원을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문화여가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어느 요인이 우선적인 개선 영역이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개인자원으로 인한 문화여가생활의 제약은 국가적인 인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법규와 제도의 개선 등으로 해소해야 하는 반면, 시설/프로그램/지원인력의 부족은 자원의 재분배, 공급 방식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문화여가자원의 평가 척도 구성 시 개인자원 및 시설/프로그램/지원인력자원을 동시에 고려한 것은, 문화여가생활 향상에 필요한 정책적 접근 영역 및 방법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본 척도의 개발을 통해 농촌과 도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역을 확인함과 더불어, 각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농촌 및 도시 모두 문화여가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간적 제약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단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황정임 & 최윤지, 2014). 즉, 척도 개발을 통해 지역 간 요인별 현황 비교 및 요인별 영향력의 크기 비교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개발된 척도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부족한 문화여가자원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우선 정책 대상 영역을 확인하는 데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설문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 과정에서 지역적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연령 분포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응답 결과에도 60대 이상 연령층이 인식이 크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에는 연령 분포가 고려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척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척도 개발 단계에서 시간 자원 항목(나는 문화여가활동을 향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이 제거된 점이다. 시간 자원은 문화여가생활에서 있어 필수적인 자원 부분임에도, 본 분석 과정에서는 어느 요인과도 뚜렷한 관계를 지니지 못했으며, 전반적으로 결과 해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시간 자원 항목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으나, 역시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문화여가 여건에서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자원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문화여가자원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고동우, 문상정, 오송대, & 김용희. (2009). 여가경험 측정척도 개발. *한국관광학회 2009년도 제65차 학술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429-439.
- 김미량, 김재운, & 황선환(2010). 진지한 여가척도 (SLIM)의 단일문항측적 적용검토.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4), 147-156.
- 김미량, 이연주, & 황선환(2010). 여가만족척도(LSS-short form)의 타당도 검증과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11), 435-445.
- 김영재. (2004). 한국형 여가만족척도 개발과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3(1), 291-299.
- 김영재. (2010). 한국형 여가몰입척도 개발과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49(2), 343-355.
- 김영재. (2012). 한국판 여가열의 척도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1(5), 549-557.
- 박수정. (2004). 전문적 여가스포츠 경험 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도 검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7(1), 33-45.
- 박애숙. (2001). 노인의 여가자원과 여가프로그램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혜원. (2013). *문화여가사업군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엄명용, & 조성우. (2005).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 표준화된 척도를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오정학, 김철원, & 김종갑. (2011). 여가제약협상모델의 타당성 검증 연구. *관광학연구*, 35(1), 73-98.
- 윤지연, 최승혁, & 허태균. (2013). 여가강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2), 235-257.
- 윤소영. (2013). *여가행복지수 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강욱. (2007). *국민 여가지표 개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미연. (2004). 대학생의 여가자원과 여가유형에 따른 여가정체성 및 주관적 행복감.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1997). 도시와 농촌의 여가생활에 관한 비교 연구. *자원개발연구소 논문집*, 2(1), 47-58.
- 조영숙, 이문주, & 황대용(2009). 농촌주민의 여가소비유형과 만족도. *농촌지도와 개발*, 16(4), 1021-1048.
- 지현진, & 이철원. (2003). 보편적 여가제약 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5), 441-449.
- 최창욱, & 이채식. (2004). 농촌청소년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95-110.
- 코뮤니타스. (2014).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보고서*.
- 홍성희, 류진아, & 임승희. (2011). 농촌노인의 여가생활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성별 마을회관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8(3), 591-629.
- 황정임, & 최윤지. (2014).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농촌진흥청.
- Beard, J. G., & Re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45-154.
24. Crawford, D. W.,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 9(2), 119-127.
  25. Driver, B. L., Brown, P. J., & Peterson, G. L. (1991). *Benefits of Leisure*. PA: Venture Publishing.
  26. Hubbard, J., & Mannell, R. C. (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 23(1), 145-163.
  27. White, D. D. (2008). A Structur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in Outdoor Recreation. *Leisure Science*, 30(1), 342-359.

---

Received 25 August 2015; Revised 13 September 2015; Accepted 20 September 2015



Jeong-Im Hwang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the quality of rural life and rural in-migration.

Address: (565-851)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jihwang@korea.kr

phone) 82-63-238-2645



Youn-Ji Choi is a researcher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are rural aging and rural in-migration.

Address: (565-851)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veritas96@korea.kr

phone) 82-63-238-2645



Min-Hye Youn is a research assistant of Department of Rural Settlement Support in th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 is rural development.

Address: (565-851)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166 Non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South Korea.

E-mail) dbsakdls@naver.com

phone) 82-63-238-2645